

설명절 가정예배

예배시작 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나눠봅시다.

1부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대표

예식사 인도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동안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설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대표기도 가족중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두 예배드릴 때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설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 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굳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1:24-25 가족중에서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영원한 생명의 길 말은 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2021년은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는 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여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관에 잠깐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관, 정든 여관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방 한 개만 들고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인생이 떠나갈 때는 모든 가족, 재물, 취미를 다 두고 주의 한 별, 관 하나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허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서는 인생을 풀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봄이 되어 얼었던 대지 위에서 파란 싹이 나고 어느 날인가 화려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꽃이 한참 만발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솔론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들이 시들고 마르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든 꽃의 모습은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생겨서 모든 여자나 남자들을 사로잡는 팔방미인이란도 아무리 부자요,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그들의 아름다움이나 재력이나 권세의 꽃도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나 재물,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 친척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허무한 나그네 인생, 썩을 장막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순례자 인생을 사시므로 영원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찬송가 384장 다 갈 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2)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2)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아멘

축복과 비전나눔 말 은 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축복하며 자녀들은 자신의 비전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부 교제)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가족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눕니다.

